
윤 성 이 교수
(식품산업관리학과)


이 상 일 교수
(건설환경공학과)


이 은 기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조 의 연 교수
(영어영문학과)


허 남 결 교수
(불교학부)

〈이상 가나다순〉

불교·대내외 경력·리더십 등 강점 '자신'

건학이념 구현 위한 계획은

고유환 교수는 불교 연계 교과목 신설이 가능한 인문사회계열 학과 선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불교와 연계한 교과신설 지원을 검토하고 참선·명상 세계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을 추진하겠다"며 "대한불교진흥원과 함께 불교교리 대중화와 포교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겸 교수는 불교친화적 교육환경과 여건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명상심리과정 등을 개발해 불교친화적 프로그램과 불교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게 김상겸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전공별 불교융합적 교과목 개발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박명호 교수는 불교대학 중심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이할 인간성 상실과 정체성 위기에 불교는 정신적 대안이다. 불교의 건학이념과 교육 목표, 교육을 실천할 '동국 DNA 인재'는 인간성 회복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바이오메디캠퍼스를 중심으로 생명존중의 BT(Bio Technology) 특성화를 통해 불교정신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송일호 교수**는 불교 한류문화원 설립 등 불교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사업을 개발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송일호 교수는 "대학생 포교 및 불교성전편찬사업을 지원하는 등 불교대중화를 위한 동국대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면서 "불교계를 위한 동국 지식의 재생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국현 교수는 '불교적 인재' 양성에 방점을 뒀다. 그는 △재학 중 템플스테이 체험 △봉사학점 확대 △불교학술원 확대개편(연구교수 증원, 해외 분원 설치 등) △불교문화 콘텐츠 연구 강화 △불교대학 독립 건물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성이 교수는 불교학 연구 세계화를 위한 지원·불교적 인재 양성 교육 등을 약속했다. 특히 불교학술원의 영문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A&HCI 등재 추진을 비롯해 △불교 명상 결합 융합학문 개발 △불교 교양교육 질적 제고 통한 화쟁형 인재 교육 △불교산업진흥원 구성 통한 불교 산학 연계 기능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상일 교수는 명상을 중심으로 한 융합연구·교육기관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명상융합대학원·글로벌명상센터 설립과 불교박물관 신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신이 졸업한 스탠포드대학을 비롯한 세계명문대학과의 명상 관련 학술교류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은기 교수는 '명상수련 컨트롤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명상 수행을 일상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세계불교문화센터를 건립해 불교국제학술대회 활성·정례화를 꾀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조의연 교수는 "불교 교리 교육프로그램 강화와 불교정신의 시대적 구현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교학술원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불교계 대표 연구기관으로 집중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불교학술원을 뇌공학, 인공지능 등 관련 학자들과 불교학자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실질적인 연구와 실험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허남결 교수는 불교계 기관들과 연계해 불교의 저변을 넓힐 것을 강조했다. 허남결 교수는 "불교계 언론과 공동으로 불교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불교실천네트워크를 확장해 불교의 저변을 넓히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면서 "불교의 사회적 공헌활동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장기기증·헌혈·환경생태운동·성소수자권익보호·다문화이주민지원·불교생명윤리실천 등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서 가나다 순〉

불교와의 인연 및 신행활동

허남결 교수는 어릴 적부터 고향인 경주 인근의 기림사, 골굴사, 석굴암, 오어사, 불국사 등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와의 인연을 맺었다. 법명은 '월인'이다. 그는 불교생명윤리 정립에 앞장 선 불자 윤리학자로 불교계에 높은 명망과 인지도를 가졌다. 허남결 교수는 "지금 전국 각지 사찰에 적을 두고 연등과 조상 영가등을 달고 있으며 중요한 날에는 반드시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지관 스님에게 '벽봉'이라는 법명을 받은 **조의연 교수**는 현재 한마음선원 안양본원과 소림사를 재적사찰로 두고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영문용어 표준화사업을 이끌었으며, 도반인 김애주 교수 등과 청소년·대학생을 위한 마음챙김 선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조의연 교수는 "〈석문의범〉의 '문차종성 이고득락(聞此鍾聲 離苦得樂)'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며 "교수들은 아침 종소리의 역할을 해야 하고, 학생들이 이를 듣는 마음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기 교수는 서경보 스님에게 '성현'이라는 법명을 받았으며, 결혼 후에는 서울 목동 법안정사 부부불자회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신행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녀들 역시 서울대 법대, 사회대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했다.

이상일 교수는 경기 의왕시 용화사를 재적사찰로 두고 있으며, '자운'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공학도이지만 불교와의 접점 모색은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는 2014년부터 생태환경연구소장으로서 불교생태학이 전통사찰환경의 유지·개선 및 도심 포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불교집안에서 태어나 현재에도 매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윤성이 교수**는 지리산 칠불사와 고성 무위사가 재적사찰이며, 법명은 '도인'이다. 2009년 6월부터 2년간 동국대학 불자교수회 총무 소임을 담당하면서 불자 교수들의 신행활동을 권장하는 제도를 정각원과 함께 추진하고 활성화하는 데 노력했다. 또한 한국사찰림연구소장 소임을 보면서 사찰림이 가지는 공익성과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녹원 스님에게 '보행'이라는 법명을 받은 **유국현 교수**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총무부장, 사무총장,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평소 꾸준한 신행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송일호 교수는 모친과 함께 어린 시절 수국사를 다니며 불교와의 인연을 맺었다. 법명은 '진공'이다. 그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 교수불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에는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을 수상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원에 대학생 포교 및 불교성전편찬사업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옥천암을 재적 사찰로 두고 있는 **박명호 교수**는 '법우'라는 법명을 받았다. 평소 부처님의 '중도'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도의 실천을 위해 '팔정도'를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하려 한다"면서 "연구실에서 본관을 오갈 때 정각원 계단을 오르며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밝혔다.

본인의 법명을 '현응'으로 소개한 **김상겸 교수**는 어릴 적부터 통도사 극락암 경봉 스님, 벽안 스님에게 수계 받은 불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동국대 재직 중에도 녹원 스님, 법타 스님, 자광 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았다"면서 "정각원, 서울 구룡사, 칠보사(석주 스님 주석) 등을 재적사찰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원 스님에게 '혜성'이라는 법명을 수계 받은 **고유환 교수**는 모친의 영향으로 불교를 접했고, 동국대 입학 이래 재가불자로서 수행해 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견성(見性)·불기자심(不欺自心)·천사불여일행(千思不如一行)'이라는 경구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순서 가나다 역순〉

동국대와 조계종의 관계 발전

고유환 교수는 조계종의 대북교류활동에 대해 꾸준히 지원했음을 강조하며 "불교·사회·대학을 연계한 종합적 동국발전의 비전을 수립하고 종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불교 교세 확장과 학교 발전을 함께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겸 교수는 "20세기 후반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불교신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불교융합적 연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단과 학교 양자 간 보다 적극적인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명호 교수는 조계종립대학으로서 동국대의 역할은 "인재불사를 통한 불교중흥"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혜·자비·정진'의 교훈을 실천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동국대는 종단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동국대와 조계종의 역할 분담과 협력은 불교중흥에 함께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송일호 교수는 '불교발전을 위한 종립대학의 역할 재정립'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종단 포교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유국현 교수는 종단과 학교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종단은 수행과 포교, 학교는 연구와 교육의 분야에서 상생과 협력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포럼'을 구성해 종단과 공동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이 교수는 '대학과 종단 협력위원회' 구성을 통한 상시적 협력 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대학은 새로운 포교 방식에 대한 과학·학문적 지원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종단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교수는 자신이 추진하려고 하는 "명상융합대학원 설립, 불교박물관 신축, 북한불교유적발굴단 구성은 불교에 기반한 시대정신을 살려나갈 수 있는 비전"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학과 종단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은기 교수 역시 종단과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동국대와 조계종단이 상호 협력해, 불교 중흥과 동국대 발전이라는 상생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의연 교수는 "종단과 학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의견 공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동국대는 미래 및 현재 사회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의 문제에 불교적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남결 교수도 종단과 상생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는 교육불사에 매진하고 종단은 포교불사에 집중한다면 종단과 학교가 동시에 발전하는 방향으로 불자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서 가나다 순〉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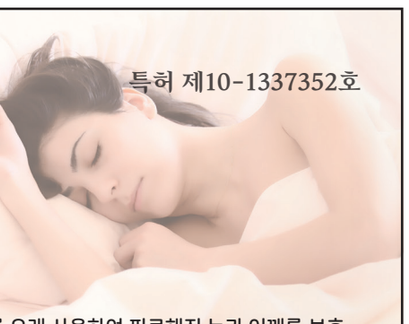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포천로 224
전화 031)532-3722, 031)533-3722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1등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